

Calling all to Himself (Matthew 11:25-30)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SHA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load is light."*

All humans want to go where they want to go. Everyone likes to go where they choose. We have the privilege of selection. Some people may want to go home after this service, others may want to go shopping, attend a movie, or sports event, and still others may want to stay on and serve in some ministry area. The point is that in this world you have choices to go to a lot of different places, but the most important place to go is to Christ. Why? The Bible gives us many reasons. Therefore, let us look to the Scriptures and ruminate the most wonderful of wonderful place.

At the place of Christ you find forgiveness. The woman who cried at Christ's feet, anointing them with perfume while wiping them with her hair found forgiveness (Lk. 7:48). The Pharisee, whose house Jesus was visiting at the time, didn't like that woman coming to Jesus. He didn't like that place. He said, "If this man were a prophet He would know who and what sort of person this woman is who is touching Him, that she is a sinner" (Lk. 7:39). All sinners are welcome at the place of Christ. It is the best and only place to go for the cleansing and remission of sin. Indeed, it is a forgiving place.

When you come to Christ you will find a place where you can be cured. Jesus said, "Come to Me, all" (v. 28). It doesn't matter what nationality you are or what color you are. Whoever goes to the place of Christ will find it a place of healing. "And large crowds came to Him bringing with them those who were lame, crippled, blind, mute, and many others, and they laid them down at His feet; and He healed them" (Mt. 15:30). This wasn't the only time and place Jesus healed. Jesus tells us now, today, that whoever comes to Him, weak or sick, He will always heal them. The Bible clearly states,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yes and forever" (Heb. 13:8). Amen! He healed both Jew and Gentile during His earthly ministry, and He heals both Jew and Gentile during His heavenly ministry.

At the place of Christ you will learn the Word of God. When Jesus visited the home of Mary, Martha, and Lazarus in Luke 10:38-42, He found Martha busy getting the dinner ready while Mary sat at His feet. Martha wasn't too happy about the situation. She asked Jesus, "Lord do You not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to do all the serving alone?" Jesus responded, "Martha, Martha, you are worried and bothered about so many things; but only one thing is necessary, for Mary has chosen the good part, which sha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The Word of God is so important. Listen closely to what Jesus said, "All things have been handed over to Me by My Father, and no one knows who the Son is except the Father, and who the Father is except the Son, and anyone to whom the Son wills to reveal Him. Blessed are the eyes which see the things you see, for I say to you that many prophets and kings wished to see the things which you see, and did not see them, and to hear the things which you hear, and did not

hear them." When you go to Christ, He will teach you the Word of God. God gave Him everything. Your job is to come, listen, and obey; then you will learn.

When you come to Christ you will find a place of prayer. The synagogue official, Jairus, prayed to Jesus, "My little daughter is at the point of death; please come and lay Your hands on her, so that she will get well and live" (Mt. 5:23). His prayer was answered. The place you pray is the place where it is done. Christ's place is the best place for prayer. Why does He ask you to come to Him? Because at the place of Christ is the best place for appreciation. All too often we forget this. When Jesus healed the ten lepers, only the Samaritan returned and fell on his face at His feet, "giving thanks to Him" (Lk. 17:16). When you go to Jesus in prayer, do you appreciate His grace and blessing upon you? Or do you continually ask for Him to give you this or that? Do you realize how selfish this is? If you become a real child of God, you should come to Him with appreciation.

My dear friends, the place of Christ is the best place. When the crazy, demon possessed, and naked man of Gerasenes came to Jesus a really big thing happened. He went from crazy to calm, from demon possession to God's possession, and from naked to clothed (see Lk. 8:26-39). He found rest. His respect and appreciation for Jesus gave his heart a comfort and joy beyond measure. When you come to Jesus you will have rest too. You will find it is a place of worship, like John, who fell at His feet like a dead man (see Rev. 1:17-18). When you deny yourself completely, you will be able to worship as the angels in heaven, saying,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to receive power and riches and wisdom and might and honor and glory and blessing" (Rev. 5:12).

Jesus Christ asks everyone to "Come to Me". He has unlimited space. Amen!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receive eternal life. Please open your heart,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Heb. 3:7-8). Listen to Him now, tomorrow may be too late. Come to Him now, "how will we escape if we neglect so great a salvation" (Heb. 2:3)? Don't ignore His voice, His calling. This is eternal life we're talking about. Christ is asking you to come to Him and receive salvation, to learn from Him the Word of God, and to serve in yoke with Him. Come to Christ and be forgiven. His arms will give you perfect rest in heaven. Believers will receive salvation sure and endless life. You shall receive and be blessed evermore. Come to Christ and you shall know His gifts of grace, rich and free. Joy and thanks will overflow. Oh, how glad you will be. Come to Christ before His throne and stand wrought in white, in the bright and shining home of eternal light. ☠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지영 (중동2부)



지난 8월, 아직은 어리고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스리랑카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사람의 무지한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10명의 대원들과 함께 처음 스리랑카 땅을 밟았을 때, 사실 너무나도 두렵고 낯설었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내 안에 이기심과 욕심,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낯선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곳에 적응하게 해 주세요. 이곳을 사랑하게 해 주시고,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 놓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주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 순간 주님은 저의 마음이 두렵지 않게 해 주셨고 기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주님은 저에게 굶주린 사람들과 종족한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주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스리랑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열정함과 달리 저희들이 주는 전도지를 끝까지 읽으며 우리의 절멸에 친절히 대답해 주었고, 천사같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참 많이 감사했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살짜리 아기가 살고 있는 그 가정은, 우리가 길거리에 서 전도지를 줘 전도지를 할 때 직접 나와서 우리를 집안으로 들어오라며 반갑게 환영해 주었고, 집 안에 들어가서는 성령받은 된 찬양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사님의 영이 설교로 예수님을 알게 된 가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며 가까운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하리만 맛있는 스리랑카 음식을 정성껏 차려서 우리를 대접하였고, 우리는 성경책을 선물했습니다. 성경책을 받고 굉장히 즐거워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가정이 죽는 날까지 스리랑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한 후, 주님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우리를 인도 하였고 그곳에서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심으로 살아오면서 해 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조금씩 조금씩 나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아주 작은 거저씨와 같겠지만 우리의 복음을 전시킬 마음으로 영접한 스리랑카 사람들 마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김동욱

(한동집사, 1교구 몽골단기선교단원)

‘울란바타르’에서의 8월 7일, 새 아침.

사역 전열을 기다들은 14교구 선교단은 아주 낯은 러시아 산 9인승 봉고 두 대에 나눠 타고 ‘울란바타르’를 떠나 러시아와의 최북단 국경지역인 ‘Tushik’을 향하였다. 피곤한 몸을 깨대로 추스르지도 못한 상태였지만 모든 단원들의 마음은 ‘야!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사역에 대한 뜨거운 기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날씨가 훨씬 더워진 위에서 한가위가 풀을 뜯으며 간간히 지나는 차를 향해 선한 눈빛을 보내는 말과 소, 그리고 양 떼들... 두세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 초원을 가로질러 찾은 마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이 ‘좋은 소식’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나라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특별히 ‘바루하라’에서 노방전도를 할 때 길에서 만났던, 고등학교에서 몽골어를 가르치는 여교사와 ‘울란바타르’에서 방학 중에 친척집에 놀러왔던 여대생이 기억에 남는다. 처음에는 갈 길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단원들과의 교제에 부정적이었던 이들이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듣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울란바타르’에 돌아가면 꼭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으니 정녕 그들이야말로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신 천국 백성들이 아니겠는가! 오, 할렐루야! 또한, 자신들은 이미 복음을 들어 말씀을 사모하여 왔지만 그 마을에 교회도 없고 성경책도 없어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나 오로에야 이루어졌다며 성경책을 받아들이고 기뻐하시던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내외분의 모습도 잊을 수가 없다.

마침내 몽골 최북단에 위치한 러시아와의 국경지역인 Tushik(숨: 한국의 군단 위)에 도착하였다. 위도 상으로는 한국보다 상당히 따뜻하지만 고원이어서인지 햇볕이 엄청나게 뜨거워서 낮 시간에는 모자를 안 쓰거나 긴 옷차림이 아니고는 도저히 나다닐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곳도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다. 주님께서 이곳에도 많은 영혼들을 예비해 주셔서, 물을 길기 위해 나온 아주머니를 만나게 하신 것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 특히 투식숨의 솜장이 우리 일행을 찾아와있다. 우리에게 대한 관심보다는 그곳의 행정 책임자로서의 임무수행이 목적인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는 우리의 어린이 사역을 위해 투식숨의 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우리는 그 덕분에 그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번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몽골을 주님의 나라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심을 생경히 느꼈 수 있었다.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같이 언약하고 부끄러운 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이 참으로 놀라고, 한 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것이 전진으로 감사했다.

도브라이덴(안녕하세요)

이부성 (한수집사, 1교구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단원)



늦게 펼쳐진 평원과 평화롭게 보이는 풍경으로 풍요로움을 더하고 있는 땅, 우크라이나. 이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함으로 안타깝게도 형식상의 종교생활

에 젖어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치안이 안정되지 않아 전도하기 위험하다”라는 말을 들은 우리 단원들은 걱정 만, 실제로는 걱정 만으로 우크라이나를 향하여 출발했다. 수도인 키예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정교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방전도를 하였고, 보수세력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부 중소도시 테르노빌시와 그 인근지역에서는 심방과 축조전도, 일대일 노방전도, 교인어 방문 전도를 통해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전도지를 통하여 해 예수를 믿어라 하는지 전했다. 다시 최서쪽 지방지역인 우즈고라드의 집시촌을 방문하여 햇빛과 가난하여 문화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채 각종 질병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집시들과 교제할 수 있었다. 그들을 만나주고 머리를 깎아주고 손잡고 기도하며, 함께 전도지를 읽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하며 복음을 받아드리며 밝게 미소짓는 그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더욱이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심지어 인근 우크라이나인도 찾지 않는 이 벽지 변방에, 지구 반대편 마나인 곳에 있는 작은 나라 한국에서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우리들도 사랑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었다.

“예수님, 저희들이 그 동안 뿌린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거대한 땅 우크라이나에 편안하게 하옵소서”.

다시 만나주실 주님

강진우 (대학부)

내가 땅을 밟고 있으면
당신의 가슴을 밟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신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세상의 모습을
그렇게 화려한 호기심으로 쳐다볼 때
그리고 달려갈 때
눈가에 눈물 가득
땀을 치고 몰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당신은 슬퍼했습니다.

눈물을 두드리지만
'신문사설'만큼은 경중이
'주님사설'만큼은 결코
그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나의 생명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고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모두 잃고
퍼덕거리는 실상마저
고독을 멈추려할 때
달려와 무릎짓으며
천복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당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사람에 내 몸과 마음이 켜들어 돌아내려나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기쁨텐데.

난 한 번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사랑을 할 자격도
그를 다시 만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다시와 주신다면
나에게 남은 건 죄가 남진 아픔이지만
내가 다시 일어난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선한목자되신 나의 주

권보람 (대학부, 탄자니아 단기선교단원)

7월에 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선교를 다녀왔다. 가기로 결정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렇듯 처음엔 걱정이 되었지만, 하나하나 선교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이 순탄하게 진행될수록 내 안에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일까 주님은 나에게 그 교만함을 깨우쳐 주시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셨다.

출발하기 전에 갑자기 비행기표 문제에서부터 사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이런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해결은 커녕 더 꼬여만 갔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나서야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먼저 생각해야 함을 깨달았다. 사실 난 이번 선교 나가는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 기도할 땐 인도하시고 보호해 달라고 하면서 결국 내가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나의 뜻으로 감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교만함을 하나 뚫어내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낮은 자 되었을 때 비로소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셨고, 사역하는 동안에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만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다.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영웅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모두가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다.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놀리기도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어 진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깨닫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작은 결심

조설희 (대학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편은 사랑과 눈물과 넘어짐으로부터 자신을 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삶에서 느낀 하나님을 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한 친구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꼈 수 있다고 고백했고, 다른 친구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우리 삶의 최종 도착지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고, 저는 하루하루를 허락하시고 작은 것까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에게 공물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지만 그분이 우리 모두를 품으신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 삶의 증거들을 통해서 주님을 확인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던 중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구원의 선물, 완전한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의 기사는 '주신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했습니다. 지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은혜를 생각하며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는 분명 또 예상치 못한 곤란과 실패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제게 신실하셨던 주님을 잊지 않길 바라고 나의 기도에도 분명히 응답하실 주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소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 왜 환란들이 피해야만 하는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늘 변하지 않고 그렇게 순수하게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조금씩 더해져 가는 텅 빈 지식들과 삶의 무게들은 여러 가지 핑계들로 저를 합리화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연약함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리라 믿고 그대로 맡기고 싶습니다.

가장 큰 행복

이병희 (대학부, 파테발라 단기선교단원)

나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6명의 대원과 함께 파테발라의 오지로 선교를 다녀왔다. 떠나기 전까지 나는 선교에 대한 소망함과 기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더 많이 있었다. 파테발라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였었고, 내가 가는 곳은 그 중에서도 오지였기 때문에 선교지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였다. 언어도 부족언어를 쓰기에 이곳에서 배워갈 수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높은 산 속에 있었기에 하루에도 몇 시간씩은 산을 올라서 이동해야 한다는 체력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는 순간부터 이러한 내 마음 속은 걱정과 두려움 대신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셨다.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참 행복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중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다. 비록 아직 사역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환경들

과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내 자신을 보며 또한 그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한다. 돈을 벌어서 부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쫓아 쫓지 않고 뛰어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완벽한 행복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어떤 것으로든 자신의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분을 위해서 사는 것뿐임을 모른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살다만 지금 내가 조금 겪는 고통은 오히려 나에게 감사할 제목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선교에 대해 빌라도는 소망함을 가지지 못했던 내가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께로 한 발짝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다가오셔서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음을 느꼈다. 이번에는 은혜들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구역장 영성훈련

주의 만찬 (시 116편)

7교구: 정진호 목사



구역장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회개가 깊어지며 보혈의 감사를 느낀다"라고 성찬 예식의 좋은 점들을 말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구역원들과도 성찬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해야 한다"라는 정진호 목사의 권유로 영성 훈련을 시작했다.

정기적으로 성찬을 경험하면서 어떤 성도들은 '성찬을 이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성도들이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찬 때 감동적으로 회개하며 십자가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성찬을 하면 성찬이 식상해지고 성찬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도 습관적으로 감동 없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 생각은 인간들, 자신들의 죄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신다고(시 116:15)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을 자주 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를 것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몸소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전혀 없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임을 몸소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이다. 성찬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는 있었지만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힘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가 아닌 멀리 있는 존재로 인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자주하면 할수록 구원의 기쁨을 더욱 감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성찬은 성도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만든다. 말씀은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의 죽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니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즉, 천국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에 자주 참여하는 자들은 죽음이 절망이 아닌 소망인 것을 잊지 않게 되고 믿음의 기초를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살게 된다.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깊고 큰가! 성찬은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도들과 나누어야 한다. 구역원들과도 성찬의 나눔으로 만나보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남 상육 성도를 소개합니다



35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지극히 전형적인 유교문화에서 살던 저였기에, 친구들은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딸 셋 모두 기독교인과 결혼한 것이라고 생각하던 중 막내딸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막내딸이 충현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려서인지 첫 예배에 참석했을 때 고향집에 온 듯한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사랑과 구원을 실천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교회 나온 지 석 달이 조금 안 되어 아직까지는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일은 없으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한숙정 통신원)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 최인 크로스티여사가 작사하였고, 조지 스테빈스가 작곡하였다.

- 1절: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돼 버리고 점점 더 멀리가나.
 - 2절: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시네,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 3절: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 4절: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 후렴: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이 곡은 한 마디에 8분음표 6개가 들어가는 8분의 6박자 곡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2박자(8분음표) 셋을 하나로 묶어서로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첫박자에 가벼운 액센트를 주어서 부르면 찬송의 전체적인 빠르기나 흐름이 안정되면서 가사가 잘 전달된다. 이 찬송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부드러움, 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죄로 밀려앉아 그 십자가를 지신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애대해 기다리면서 간절히 부르시는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것처럼.

(찬양원원회)

자녀를 위한 기도

고연호 (집사, 5교구)

바람부는 세상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진실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에 더하여
늘 하나님을 경의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이게 하소서.

※ 나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적어 봅니다.

+ 양호실

2교구 김철규 성도(남53세) 암이 조기 발견되어 수술하였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해 주세요.

5교구 기용영 성도(여24세) 백혈병으로 혈소판 수치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혈소판이 증가하도록, 가족과 환우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6교구 최병선 권사(여80세)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데, 체력이 너무 약하여 투석 장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11교구 정유림 성도(남63세) 올해 1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2년 전 수술했던 간 부위를 필요일에 다시 수술했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2교구 문남자 성도(여53세) 위암으로 수술하였습니다. 새신자인데 신앙이 잘 성장하고, 건강도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평안

강민철 (전도사, 중동3부 부지도)

지난주 내내 나의 마음은 참으로 평안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나, 마치 울창한 숲 속에서 잔잔히 흐르는 호수처럼 나의 마음은 참으로 평안하고 고요했습니다. '이 평안이 어디서 온 것일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세상이 이 평안을 나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 평안이 오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던 순간 불연듯 다음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발견한 이 말씀으로 나의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이 평안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단 것입니다.

이 같은 평안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혹 가진 재물이 많아서, 또는 가진 지식이 부요해서 아니면 세상 지위가 높거나 명예가 높아서 평안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자신들을 평안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물이나 지식이 많으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평안함을 추구하며 갈망하고 있는 듯합니다.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

력이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이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일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바다의 배로 비유하자면 거센 파도와 싸워야 할 때도 있으며 암초에 부딪쳐 위기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27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실제로도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던 중에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 큰 물결이 배 안을 덮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며 급히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그리고 곧바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큰 물결이 덮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세상 만물이 아니라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학교에서】

"또 여호와와 의 무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강력한 지도자였던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상숭배에서 멀어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은, 사사의 치리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또 여호와와 의 무전에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을 사용하여 이스라엘로 7년 동안 압박과 수탈을 당하게 하십니다(삿 6:1).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6절). 이처럼 하나님은 주위의 열국들을 이용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므로 그들이 그 타락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로 부름 받은 기드온은 몰래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11절). 연약하고 작은 자였던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시고(15절)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12절).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성을 모아 전투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병사의 수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심으로, 승리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군대로 각각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항아리 속에 감추어진 횃불을 들게 하십니다. 그는 그들을 100명씩 셋으로 다시 나누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우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라"(7:20).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팔소리와 함성에 의해 무너졌던 것처럼, 미디안 군인들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한 목적은 단순히 이방의 압제를 그치게 하려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완악한 이스라엘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하셨습니다(7-16절).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전투 인원을 극소수로 줄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만의 의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삼상 14:6).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권영희 기자)

진리의 샘

누가복음(Luke)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단지 세 곳에서 발견될 뿐입니다. 그는 사랑을 받은 의원이었고(골 4:14),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바울이 1차로 로마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와서 문헌하던 사람이었으며(몬 1:24),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순교자의 길을 걸어야 할 때 여전히 함께 있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딤후 4:11).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인이 좋은 때를 친구가 되지만, 정작 어려울 때는 쉽게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의 말대로 사랑을 받은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1차로 로마감옥에 감금당할 때) 그에게 와서 그를 문헌했으며, 지속적으로 바울과 함께 로마감옥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던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1차로 투옥되어서 기록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는 '누가' 뿐만이 아니라 '데마'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로 투옥되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디모데후서'에는 '누가'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딤후 4:11). 데마가 세상을 사형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에 비교해 볼 때(딤후 4:10), 복음으로 인하여 고문을 당하는 바울을 사형한 누가의 신실함은 오늘날의 선지자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그리스도의 사형의 달콤함 때문에 주를 따르지도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주를 보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던 이제부터 누가복음이 어떻게 읽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두 권의 성경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여 전개하고 있으며, 사도행전은 성령에 의해 세워지고 진행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고 확산되어 가는 것에 대한 모험들이 보여지고,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주께서 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더욱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누가복음에서는 결코 유대인들에게 인정되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광경이 보여지고, 사도행전에서는 실제적으로 더 많은 이방인들과 소위 자들이 교회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주제 유사성 또는 병행성이라는 동일한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러한 이유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두권으로 된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음주에 계속)

※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구약에는 나오지 않으며, 마태복음에 4회, 마가복음에 4회, 누가복음에 32회, 요한복음에 2회, 사도행전에 6회, 바울서신에 8회, 요한계시록에 1회가 나온다. (오병설, 하나님의 나라)

김동현 목사(출판국 지도)

